

광주비엔날레 외국작가 광주서 작품 제작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9월 2일 ~ 11월 6일

클링버그·사리세티아티
의재미술관 유리벽에 작품
이주노동자 커뮤니티 협업도
린드 예술감독 내일 현장 답사



지난 1월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미테-우그로'에서 진행된 2016광주비엔날레 지역 협력 프로젝트 '월레회'에서 마리아 린드 총감독과 지역민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광주비엔날레'(9월2일~11월6일) 참여작가와 설치장소 일부가 드러났다. 작가들은 광주에 머물며 지역과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제작에 들어간다.

17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은 구닐라 클링버그(Gunilla Klingberg), 줄리아 사리세티아티(Julia Sarisettiati) 작가가 광주에서 리서치와 함께 시범 작품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출신 클링버그는 비엔날레 때 광주시 동구 의재미술관 전면 유리벽에 활용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작품 구상을 하고 20일부터는 샘플을 제작한다. 샘플 제작은 유리벽에 어울리는 소재 등을 찾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그는 한국 풍수지리와 우주론, 오행, 산 등을 연계한 에너지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 작품을 보여줄 예정이다. 로고·패턴, 불교 만다라 기호 등을 아울러 동·서양 조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다.

다. 지난해 9월에도 광주를 방문했던 작가는 무등산을 탐방하고 의재 허백련이 작업했던 출살현에서 숙박하면서 남도 정서를 작품 속에 녹여낼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신 사리세티아티는 외국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많은 광주 특성에 맞춰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와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19일 광산구 다문화학교 '새날학교' 방문 등 4월5일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 이주인 커뮤니티와 다문화가정 여성 등을 만난다. 사리세티아티는 2011년 금전예술공장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노동자에 대해 연구하고 미디어로 작업한 이력이 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

는 광주지역 이민자 커뮤니티 답사 등을 통해 확장된 작품 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다.

마리아 린드 비엔날레 예술감독은 19일부터 23일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국내 4차 현장답사를 진행한다.

올해 초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월레회'(Monthly Gathering)는 지역협력 큐레이터인 '미테-우그로'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대인시장 내 미테-우그로, 양림동 등에서 예술감독, 참여작가, 시민 등 30~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달 열린다. 19일 양림동에서 진행되는 '광주견기' 행사에는 경북국 복원작업에 참여했던 조전환 대목장(大木匠)이 가이드로 동행한다.

다. 지난 1월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처음 추진하는 인프라스쿨은 예술교육 프로젝트다. 22일 조선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울 소재 독립예술학교인 RAT(RAT school of ART) 등 3곳에서 열린다. 조선대에서는 참여작가 클링버그가 강연하고 홍익대에서는 마리아 린드 예술감독, RAT에서는 아자 마모우디언 보조큐레이터가 강사로 나선다.

한편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21일 2016광주비엔날레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참여작가 명단은 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 밤바다·오동도 '전남 으뜸 경관'

도, 담양 죽녹원 등 10곳 선정

전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은 여수 밤바다(사진)와 오동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자연생태공원(낙안읍성 민속마을 포함), 담양 메타세쿼이아길과 죽녹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과 전통시장, 보성 녹차밭 등도 전남 으뜸 경관 10선에 이름을 올렸다.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와 정남진 토요시장, 해남 두륜산 대홍사, 영광 배수해안도로, 완도 청산도 역시 포함됐다.

전남도는 17일 "전남도는 지역 정체성을 살린 명품 경관 모델을 제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여수 밤바다와 오동도 등 '전남 으뜸 경관 1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으뜸 경관 10선'은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신청

한 55개소에 대해 인터넷 선호도 조사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됐다. 평가에는 여행작가, 사진작가, 한국관광공사, 관광업체, 중국 언론인을 포함한 국내외 언론인, 도 경관위원 및 공공디자인위원, 로케이션 매니저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선정 기준은 선정지 적정성, 발전지향성, 선호도, 관심·노력도, 유지관리, 잠재효과, 전남다운 것,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곳, 접근성, 먹거리 연계성 등이다. 전남지역 중국 유학생, 방문객, 여행객 등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2018년까지 매년 10선씩 추가로 선정, 누구나 찾고 싶고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정비하고, 1년 단위의 모니터링을 통해 5년 후 재심사를 거쳐 인증도 할 계획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식파라치'에 우는 영세상인 구제 나서

전남도 행정심판위, 영업정지 기간 단축 등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신고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공습이 계속되자 이들의 신고로 처벌을 받은 영세상점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 취소나 기간 단축 등 구제책을 내놓기로 했다. 계속되는 불경기,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의 공습 등의 여건 속에 간신히 점포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상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2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 70건 가운데 31건이 식파라치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지난 1월 개최된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도 식파라치의 신고 30여 건을 처리했다. 모두 유통기한을 어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은 영세상인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김영선 행정부지사 등 행정심판위원 9명은 이날 이들 영세상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영업정지 결정을 취소하거나 1~3일로 단축시켰다.

지난해 7월 7일 유통기한이 지난 창란젓을 상점에 전열한 여주시 한 점포는 식파라치 신고로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위는 법 위반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는 점,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판매금액(7200원)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점, 유통기한 경과 날짜가 2일에 불과한 점, 신고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신고로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취소했다.

이 외에도 합평군 한 점포 역시 지난해 9월 14일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판매한 혐의로 신고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가 1일로, 화순군의 한 점포 역시 영업정지 7일 처분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됐다. 이들 사건은 모두 식파라치의 신고되는 구제대상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부정식품 공익신고로 한 것으로, 구매 사진, 동영상, 구입 영수증 등 첨부돼 있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식파라치 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영세점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기간을 단축하는 등 이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노사민정협 '車 100만대 사업 성공' 결의

노사 상생프로그램 지원·광주형 일자리 창출 동참도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조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17일 광주 소공공단 내 대우에이티 R&D센터에서 상반기 협의회를 열고 자동차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조' 성공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침체한 지역경제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노사 상생프로그램 지원,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노력,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 노사민정협력활동 사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노사민정 참가자의 의지를 반영, 처음으로 산업현장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대우에이티의 시트 조립라인과 시험실을 둘러봤다.

협의회에는 윤장현 시장과 윤종태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부장, 오병교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양현 광주시고용노동정책 등 노사민정 대표 20여 명이 함께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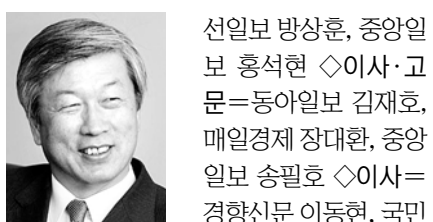
제45대 한국신문협회장에 이병규 문화일보 발행인

한국신문협회는 17일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제45대 협회 회장으로 이병규(사진) 문화일보 발행인을 선임했다. 이 선임 회장의 임기는 2018년 정기총회 때까지다.

이 회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그룹 명예회장 비서실장, 통일국민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문화일보 대표이사 발행인으로 있다.

이날 송필조 전 협회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됐으며, 김재호 동아일보 발행인, 장대환 매일경제 발행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고문으로 다시 위촉됐다.

신문협회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회장=문화일보 이병규 ◇ 고문=조



선일보 방상훈, 중앙일보 홍석현 ◇이사·고문=동아일보 김재호, 매일경제 장대환, 중앙일보 송필조 ◇이사=경향신문 이동현, 국민일보 최승규, 내일신문 장명국, 세계일보 차준영, 경인일보 송광서, 경남신문 남영만, 매일신문 여창환, 부산일보 안병길, 영남일보 손인락, 전북일보 서창훈, 중도일보 김원식, 충북매일 이경 ◇감사=서울신문 김영만, 대전일보 남상현.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남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호텔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경매학원 금맥강좌

경매 실무 위주 단기 강좌입니다. 경매에 관심있는 분이나 컨설턴트업에 도전하려는 분은 지금 연락주시시오. 경매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은 열립니다.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 완전 초보에서 실전 투자까지 1개월 완성입니다.

수시접수

시간: 오전반 화·목 10:00~12:00, 오후반 화·목 19:00~21:00, 주말반 토·일 14:00~16:00

장소: 장동로터리 한국토지경매 4층(지하철 문화전당역 5분)

과목: 실전경매(1개월 완성)

교수진: 한국토지경매연구원장 김광민 (주)Today 옥션 소장 이은진

실전경매 교수 양성의 요람 **한국토지경매학원** ☎ 062-229-1512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자 산 총계	106,677,667.766	부 채 총계	106,677,667.766
1. 유 동 자 산	11,545,353.620	1. 유 동 부 채	26,046,273.171
(1) 당 좌 자 산	9,819,991.797	1. 매 입 채 우	2,635,082.07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25,084.719	2. 미 지 급 채 권	566,446.645
2. 당 기 금 융 채 권	604,800.000	3. 전 기 지 급 채 권	17,100,000.000
3. 매 출 채 권	6,285,235.136	4. 선 수 채 권	329,958.823
대 손 채 권	58,684.374	5. 선 수 채 권	58,684.374
4. 미 수 채 권	332,877.988	6. 미 지 급 채 권	1,014,711.688
5. 선 채 대 리 채 권	294,838.880	7. 미 지 급 채 권	615,940.740
6. 미 수 채 권	3,400.603	8. 미 지 급 채 권	12,339.300
7. 선 채 대 리 채 권	19,080	9. 선 수 채 권	163,010.255
8. 선 채 대 리 채 권	668,595.066	10. 유 동 채 권	4,254,122.556
9. 기 타 담 보 채 권	99,184.727	11. 현재 가치할인채권	(1,504,543.328)
10. 유 탁 대 리 채 권	69,700.000	12. 이 대 보 총 계	480,550.000
11. 이 연 결 채 권	47,255.696	1. 비 유 동 부 채	32,495,834.551
(2) 외 국 자 산	1,725,322.023	1. 장 기 채 권	5,000,000.000
1. 차 출 채 권	1,725,322.023	현재 가치할인채권	(184,875.470)
1. 비 유 동 자 산	96,132,313.946	2. 장 기 미 지 급 채 권	33,489,544.793
(1) 투 자 자 산	13,868,022.241	현재 가치할인채권	(5,857,819.743)
1. 장 기 금 융 자 산	5,000.000	3. 퇴 직 기 금 총 장	1,847,156.657
2. 매 도 가 능 증 권	2,188,833.648	퇴 직 기 금 총 장 자 산	(1,788,173.686)
3. 지분법적용투자자산	11,674,188.593		
(2) 유 형 자 산	79,031,739.783		
1. 토 지	1,386,085.205		
2. 건 설 물	3,095,514.475		
3. 설 비	(1,514,571.956)		
4. 무 형 자 산	123,679,676.686		
5. 장 기 금 융 채 권	(69,292,604.607)		
6. 유 형 자 산	21,297,051.714		
7. 무 형 자 산	(21,297,046.714)		
8. 장 기 금 융 채 권	332,893.338		
9. 장 기 금 융 채 권	(153,036.700)		
10. 장 기 금 융 채 권	610,079.260		
11. 장 기 금 융 채 권	(438,298.558)		
12. 장 기 금 융 채 권	4,848,393.925		
13. 장 기 금 융 채 권	(4,848,393.925)		
14. 장 기 금 융 채 권	10,378,366.136		
15. 장 기 금 융 채 권	12,904,298.303		
16. 장 기 금 융 채 권	(1,826,617.361)		
17. 장 기 금 융 채 권	2,232,551.922		
18. 장 기 금 융 채 권	160,533.714		
19. 장 기 금 융 채 권			
20. 장 기 금 융 채 권			
21. 장 기 금 융 채 권			
22. 장 기 금 융 채 권			
23. 장 기 금 융 채 권			
24. 장 기 금 융 채 권			
25. 장 기 금 융 채 권			
26. 장 기 금 융 채 권			
27. 장 기 금 융 채 권			
28. 장 기 금 융 채 권			
29. 장 기 금 융 채 권			
30. 장 기 금 융 채 권			
31. 장 기 금 융 채 권			
32. 장 기 금 융 채 권			
33. 장 기 금 융 채 권			
34. 장 기 금 융 채 권			
35. 장 기 금 융 채 권			
36. 장 기 금 융 채 권			
37. 장 기 금 융 채 권			
38. 장 기 금 융 채 권			
39. 장 기 금 융 채 권			
40. 장 기 금 융 채 권			
41. 장 기 금 융 채 권			
42. 장 기 금 융 채 권			
43. 장 기 금 융 채 권			
44. 장 기 금 융 채 권			
45. 장 기 금 융 채 권			
46. 장 기 금 융 채 권			
47. 장 기 금 융 채 권			
48. 장 기 금 융 채 권			
49. 장 기 금 융 채 권			
50. 장 기 금 융 채 권			

2016년 3월 18일
광양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삼훈